



익산시는 22일 금마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부지에서 정현을 시장, 최종오 시의회 의장, 문화재청, 전라북도, 도·시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첫 삽'

세계유산·백제왕도 핵심 유적 통합정보 제공... 총 198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개관

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센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과 교육, 탐방 안내, 방문객 편의증진을 제공하며 세계유산도시이자 문화도시인 익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22일 금마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부지에서 정현을 시장, 최종오 시의회 의장, 문화재청, 전라북도, 도·시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총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171㎡ 위에 3개동 지상2층 연면적 3,650㎡ 규모로 건립된다. 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도

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분산된 익산의 핵심 유적들에 대한 통합 정보와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다. 총 3개동으로 1동 환승센터 1층에는 부지 내 체험가능한 키보드 대여장소 및 정비창고,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옥상은 야외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동 세계유산센터 1층에는 세계문화유산 도시 백제고도 익산의 유구한 역사와 백제왕도 핵심 유적들의 상징성이 전시될 홍보관이 위치하고, 2층에는 백제왕도 고도(古都)자료관 및 열람실 등이 배치된다. 3동은 고도통합지원센터로 익산 고도보존육성 세계유산보존관리 주민협의회 사무실 및 체험공간 등을 배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고도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古都)경관 이미지에 어울리는 외관 색채와 내·외부 관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하였으며, 백제대표 문화재인 미륵사지 석탑을 모티브로 한 처마 끝 선이 인상적이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에 진행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여 차례의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지역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백제왕도를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각종 행사 및 전시,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일본서기 차용한 '전라도 천년사' 내용 공개하라"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촉구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임나(任那) 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을 담은 '일본서기'를 차용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공개하고, 전북연구원과 편찬위원들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나일본부설을 공인하려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그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도민연대는 "전북연구원의 편찬위원들은 일본서기 속 지명을 한반도에 비정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등으로 표현했다"면서 "이에 대한 비판에 '유사사학'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대놓고 검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 속 지명을 천년사에 담은 것은 스스로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도민연대에는 식민사관정산가야사 광주

연대, 가야문화진흥원, 고행가야선양회, 식민사관정산 가야사전국연대, 대한사랑 전북지부, 남원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다. 이들 단체는 "편찬위원들은 무엇이 두려워 전라도 천년사 내용 공개를 막는다"라며 "출간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 공개 학술토론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밝히 전라도 천년사를 도민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도 주도로 전남, 광주가 공동 추진한 기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4억원으로,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아미돼 떠나는 완주 BTS로드'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 대표코스 선정·가이드북 제작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완주군이 한류 대표 관광코스로 선정돼 한류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해 케이-팝, 한류스타, 드라마, 예능, 영화, 케이-콘텐츠 등 총 6개의 테마로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공사는 이들 51선 중 14개 코스를 엄선해 가이드북 '한류위키'를 제작했다. 완주군은 14개 코스에 포함되면서 가이드북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북은 국문으로 사전 제작됐으며, 영문, 일본, 중문(간체, 번체) 등 3개 언어도 내달 선보인다. 관광공사는 소개된 한류 대표 코스가 여행업계의 한류 관광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한류 팬들이 실제 방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류위키' 가이드북에서 완주군은 '아미돼 떠나는 BTS로드'로 소개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BTS 멤버들이 걸터앉았던 다리가 있는 고산 창포마을, 성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위봉산성, 촬영당시 수일간 통째로 빌려 머문 아원고택, BTS 영상에 소개된 소양 오성제 저수지, 멤버들이 만경강을 굽어보며 음료와 빙수 등을 즐기던 삼례 비비낙안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에 더해 한류 팬들이 즐길만한 보양식으로 완주5미 중 하나인 묵은지닭볶음탕과 닭백숙 음식점도 소개했다. 완주군은 BTS가 다녀간 직후 가이드북에 소개된 장소와 멤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구이면 경작산까지 더해 'BTS 6로드 스탬프투어' 상품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50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한류 팬들이 몰리는 한류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BTS 촬영지로 관심을 모았던 웰니스 여행지를 중심으로 구이안덕마을,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완주의 관광자원까지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창 봉덕리 봉덕고분, 긴급발굴조사 추진

전북도 유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공모사업' 선정... 국비 8000만원 확보

고창군이 지난 17일 문화재청의 '2023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에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의 봉덕고분이 선정돼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적 보호를 위해 긴급발굴조사를 전액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9개 시·도 21개 유적이 신청해 5개 시·도 8개 유적이 선정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됐다. '고창 봉덕리 봉덕 고분'은 지난해 땅콩 경작을 위한 발갈이 과정에서 무덤의 뚜껑돌로 추정되는 대형 석재와 토기편 등이 노출되어 경작자가 고창군에 신고하여 주변 일원을 기초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사적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도기념물 '고창 만동유적' 중간에 위치하고, '고창 봉덕유적'과 '고창 도산리 유적' 등 마한~백제시대 고분과 집자리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즉, '고창 봉덕리 봉덕 고분'은 새로이 발견된 비지정 문화재로, '고창 만동유적' (도기념물),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고창 예지리고분'의 계보를 이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따라서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분으로 추정되어 유적 범위와 성격 규명 등을 위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유적 훼손 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는 고창지역 마한~백제시대 고분에 대한 성격 규명 및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와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호남지역 고대사를 이해하는 기초자료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청 오미숙 문화예술과장은 "고창 봉덕리 봉덕 고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창지역의 마한~백제시대 고분의 변화와 성격을 규명하고, 조사성과에 따라 향후 마한역사 문화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유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